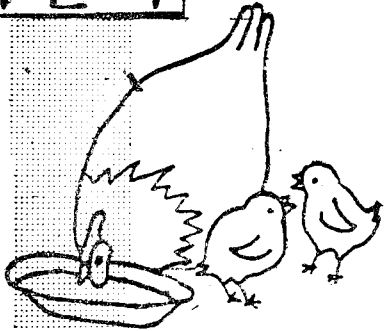


이달의



사양관리

계절적으로 닭의 생산능력이 가장 우수한 3.4월이 지나고 5월로 접어들게 되면 외기온이 서울 지방에 있어 평균 16.3°C 이며 최고 30°C 이상으로 상승하는 예도 있어 하계 사양관리의 시작을 해야하며 일조시간도 점점 길어져 서울지방의 경우 5월 1일 일출 05:37

일몰 19:22(13시간 45분), 11일은 일출 05:27 일몰 19:31(14시간 4분), 21일에는 일출 05:18 일몰 19:39(14시간 21분), 31일에는 일출 05:13 일몰 19:47(14시간 34분)이 되어 점소등 시간의 조절도 고려해야 된다.

또한 3.4월의 건조한 기후는 점차 습윤한 공기로 변하고 비도 자주 내리므로 고온 다습한 우기로 들어서는 문턱으로서 제사주위의 배수와 제사내의 통풍, 습기의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함과 동시에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여러가지 질병의 병원체 및 그 매개체(주로 곤충)가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하므로 철저한 방역대책과 함께 해충구제 계획도 짜서 질병의 접근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제두, 목시름, 류코싸이토준, 회충등의 질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외부 기생충의 구제도 관심을 써야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3.4월의 많은 산란량을 거친 산란제는 차츰 그 능력이 낮아지고 피로증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적합한 도태 기준선을 마련해서 과감하게 도태되는 것이 흑자 경영의 지름이다.

또한 간과해선 안될 중요한 점은 육추에 있어서 봄추는 일조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자연조건 하에서 육성하게 되므로 지나치게 성숙속이 빨라지고 초산일령이 빨라져 많은 피해를 입게되니 제한급여나 점등 시간의 조절 제한급수 등으로 성숙속을 억제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이달의 관리요점으로서 영양관리 환경위생관리 도태 육추등으로 나눠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영양관리

외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몸의 생리작용과 유지를 위한 열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동계에 비해 사료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증전에 급여하던 사료단으로는 닭이 생산을 하기위해 필요로 하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무기물)의 부족증상을 나타내기 쉬우니 사료배합시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어분 박류의 배합율을 증가시키고 비타민 무기물 종합첨가제(Vitamin, mineral supplement)의 첨가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죽 단위사료의 질을 개선해야된다는 것이다. 특히 종계사료에 있어서는 지방체의 방지를 위하여 메치오닌 코린의 함량을 증가시키고 라이신의 첨가를 줄이는 것이 흑자기 일사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청초 아카시아 잎등 녹사료의 급여에 의해 부족되기 쉬운 비타민의 함량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2. 육추시 주의할점

고온다습해 지는 기후와 더불어 질병의 발효등으로 육추가 점점 힘들게 되나 반면 연료비가 절약되며 여름철의 부로일러 성수기를

5월

김 상 곤
〈인산농원 제1농장장〉

맞아 육추에 힘을 쓰게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습기를 제거하여 콕시듐의 예방에 주의해야 하고 내부기생충의 구제, 뉴켓슬 제투등의 예방접종등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우리가 육성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써 일조시간과 성성숙과의 관계이다.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사이에 부화된 가을추 겨울추 특히 하지 이후에 부화된 겨울추는 일조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져가는 3.4.5월에 중추 대추기에 들어가서 너무 과도하게 성성숙이 빨라져 체성숙이 완성되기 전에 초산을 개시하여 소란, 소체구, 산란지속성의 약화, 탈홍, 경제수명의 단축등 많은 피해를 입게된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육성시에 사료의 질과 양을 제한해서 급여하는 제한급여법이나 초생추가 입식했을 때 대추 중추시기의 일조시간을 계산해서 그것과 같거나 높은 시간으로 절등을 하고 대추시까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일정 점등법이나, 점점 약간씩 줄여나가는 점감점등법이 있는데 제한급여법과 점감점등법을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의 방법을 쓸때 사료의 절약으로 인한 사료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성성숙의 적절한 조절로 난중의 증가, 산란지속성의 강화, 생식이 질환의 방지 적당한 초산일령등 일석이조의 경제적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3. 도태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3.4월의 산란능력의 최대 발휘로 말미암아 닭은 극히 피로한 상태에 있어 휴산제 파산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특히

영양관리가 소홀해 지면 일시에 대군의 닭이 과산을 하게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유능한 양계가는 항상 능력이 저하된 닭을 찾아내서 도태시켜 사료의 손실을 막고 계군의 산란율을 적정선 이상으로 유지하도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꾀해야한다.

과산계 휴산계의 도태는 일년중 어느때나 필요할 시는 과감하게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며 산란조사가 목표나 의모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도태계를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사,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태되는 즉시 새로 육성된 갱신계를 채워 넣도록 계획을 짜야 한다.

또한 이달부터는 난가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며 사료비 인건비등은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이므로 불필요한 지출과 적자요인을 과감히 수습해 나가야 될 것이다.

4. 환경위생과 방역

고온 다습한 환경조건은 자연히 병원체의 활발한 증식과 침투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경위생과 예방접종, 예방과 치료제(약품)의 사용이 중요하다 하겠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음수량이 증가하게 되며(예 16~20°C때는 사료섭취량의 약 2배) 따라서 연변의 배설이 심해져 계사바닥이 습윤하게 되는데 제분(除糞) 작업을 빈번히 실시하고 계사내에 통풍장치(환기선, 천정환기공등)를 많이 설치하여 통풍환기가 잘 되도록 해주고 습기를 제거하는 약품이나 음수 제한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문제이다.

특히 비가 많은 우기에 들어서기 전에 계사주위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통풍에 방해가 되는 나무나 건물등은 없애주도록 하며 천정 벽등도 수리해야한다. 계사주위의 도랑이나 습지 쓰레기장등은 병원체나 매개체가 되는 파리, 모기등의 발생처이므로 깨끗이 처리하고 소독약이나 구충제를 살포해야 된다.

이와 더불어 외부기생충 구충제와 회충, 촌충, 맹장충등의 내부기생충을 구제하여야 한다. 기생충 구제는 케이지계사는 6개월에 한번씩 평사는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다. 류코사이토준균은 매개체가 되는 닭겨모기의 구충을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6월부터 10월까지는 사료중에 후라조리본 제재 피리메타민등을 혼합해서 급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콕시듐의 예방을 위해 사료에 암프롤 콕시덴 D.O.T.등의 항콕시듐제를 혼합해서 급여함과 동시에 계사내의 습기 제거, 물통에 감염체의 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제분을 매일 관찰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격리하여 치료해야 한다. 이미 다수가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면 암프롤 수용산을 음수에 희석하여 주변 속효성이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뉴켓슬과 제투에방접종이다. 이 전염병은 피해가 막심하므로 육추시나 성계시를 막론하고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데 제약회사에서 지시하는 양과 접종부위 접종간격(시기) 사후처리 등을 준수해야 하며 예방접종 전후 3일간은 필히 항생제를 투여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